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에 관한 추기(追記)

GLQ 25:1, 2019

수잔 스트라이커
백소하 역주
김호영 감수

『GLQ』에 기고한 1994년의 글 「샤모니 마을 위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을 『GLQ』에서 논하는 게 이 짧은 에세이로 세 번째다. 그 글은 메리 셸리의 소설에서 괴물이 그 창조자에게 말대꾸하는 장면을 변주하는 수행적 텍스트로, 트랜스 생명의 격하에 대한 성전환자의 응수를 부자연스러움과 인공성의 귀속을 통해 상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지난 25년간 퀴어 이론의 발전의 특정한 차원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저작의 중요성을 평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내 「프랑켄슈타인」 글을 내가 세상에 처음 풀어놓은 지 사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글이 아직 나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GLQ』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저작(현재 캐시 코헨의 훌륭한 「핑크, 불대거, 그리고 복지수당 여왕」에 이어 2위)으로 남아있어 행복함은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 구글 알리를 맞춰두었고, 가끔 이 글에 관한 언급이 내 받은편지함에 떠오르는 걸 지켜보며 크게 기뻐하게 된다. 알리는 트레블로시티의 요정¹⁾이 보낸 엽서처럼 그 글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그 글은 텀블러와 트위터의 셀 수 없는 계정에 발췌문을 제공하여 추종자들이 생겼고, 폭넓은 학술적 회화(會話)에 기여하였다. 그 글이 유통된 맥락을 조금만 대자면, 체현, 기술-문화 연구, 고딕 문학과 과학 소설, 정동이론, 포스트휴머니즘, 동물 연구, 급진주의적 비거니즘, 몸의 철학, 그리고 퀴어와 트랜스 간 관계 연구가 있다.²⁾

비록 내가 당시에는 그리 개념화하지 않았으나, 내 「프랑켄슈타인」 글은 요즘 말로 퀴어 이론 내 암묵적인 시스규범적 편향이라고 할 것에 대한 암시적인 비평을 제공하였다.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나는 『GLQ』 창간호를 열고 퀴어 연구 제도화의 새로운 국면의 시발점이 된, 게이 수치심의 퀴어 정치학에 관한 주디스 버틀러(1993)와 이브 세지윅(1993)의 논문 한 쌍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분노의 정동에 관한 내 생각에 의식하지 못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초기 퀴어 이론에서 명시한 바를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수치심은 젠더화된 주체의 선행하는 통합에 입각하며, 자신이 개인을 스스로 존재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뭔가의 “나쁜” 인스턴스화라고 여기는 주체적 지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 젠더 지정 질의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반감이 아니라 애초에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살의 의미를 생산하는 패권적인 유물-담론적 실천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젠더 존재론학의 지배적

1) (역자주) 정원 요정상(妖精像)은 2004년 초부터 온라인 여행사 Travelocity.com(1996-)의 여러 광고에서 등장하였는데, 이후 이 요정상은 트레블로시티의 비공인 마스코트가 된다. 이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행한 ‘여행하는 요정상’ 장난, 남의 정원 요정상을 훔친 뒤 요정상이 여행을 갔다는 사진이나 편지를 보내고 다시 돌려주는 장난을 의식한 것이다. 트레블로시티의 광고에서 요정은 대개 여행자들 앞에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나타나, 그들의 여행에 조력한다.

2) Barad 2015; Galofre and Misse 2015; *Liberazioni* 2015; Sullivan 2005; Weaver 2013; Zigarovich 2018을 보라.

양태에 저항해야했던 나 자신의 영적인 삶에 걸고 말하건대,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분노하였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을 되돌아볼 첫 기회는 『GLQ』의 10주년 기념호(2004)에 찾아와, 나는 이전 글에서 명시되지 않은 바를 분명히 하는 「트랜스젠더 연구: 퀴어 이론의 사악한 쌍둥이」라는 에세이를 투고하였다. 나는 1990년대 초의 자칭 급진주의 퀴어 네트워크에 가담하여 “퀴어”는 내가 트랜스로서 속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GLQ』의 「트랜스젠더 호」를 객원 편집한 것은 이 믿음을 내게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새천년이 밝게 되면서, 시스규범적 퀴어 이론이 퀴어 섹슈얼리티의 인식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젠더 범주를 자연화하고, 범주 그 자체의 생산에 관한 질문을 주변적 지위로 격하하거나, 그러한 질문들을 퀴어 이론에 전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트랜스 연구는 유색인 퀴어나 장애인 퀴어 비평과 마찬가지로, 퀴어함이 섹슈얼리티보다는 차이의 다른 영역에 집중하여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다른 방식을 제공한다고, 나는 주장하였다.

내가 2015년 『GLQ』의 특별합본호³⁾ 「퀴어 비인간주의」에 다시 한 번 그 글을 되돌아볼 즈음에 퀴어 이론의 기반은 인간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살 가치가 덜하다고 간주되었던 체현의 양태에 초점을 맞춘 내 이전 글이 주변적이기보다는 선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Muñoz 외. 2015). 퀴어 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광범위한 전환을 살피며, 아원자적인 것부터 우주적인 것에 이르는 존재의 규모 사이의 연결을 개념화하는 데 일조한 배치 이론⁴⁾을 통해, 인구의 분할과 인구 내 집단의 위계화를 분석한 생명관리정치의 틀과 본질적 유동성 및 물질성의 활기를 강조한 존재론적 관점을 연결하였다. 이 떠오르는 패러다임에서, 종, 인종, 혹은 성과 같은 삶의 범주화 사이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범주가 생계를 위한 다소간의 능력을 만들어낸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가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질문은 전면화되었다.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의 인간주의적 가치 위계 위에 선 백인 이성애남성적 비장애 형상(Man)에 [그들을 - 감수자] 종속시킨 방식에 육화된 삶의 수많은 다양성 사이를 횡단하는 연결점을 퀴어 이론이 구축하기를 지향하면서, 이제 그것[퀴어 이론 - 역자]은 그 안에 등지를 틀고 새로이 파악되기를 기다리는, 성전환자의 괴물성에 관한 형상에 있어 달리 보일 것이다.

3) (역자주) 원문은 double issue이다. 합본호는 “잡지나 학술지 따위가 두 호 이상이 묶여 한꺼번에 제본된 것”(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의미하지만, double issue는 휴재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두 호가 나올 기간을 말하는 한 호를 지칭한다. 즉, 합본호가 정의상 두 호의 결합이라는 내용과 분량의 증가가 전제된다면, double issue는 그 호가 차지하는 기간을 특정할 뿐 내용과 분량은 기존의 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더 나은 번역어가 없어 “합본호”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 (역자주) assemblage theories. ‘배치 이론’, 혹은 ‘아상블라주 이론’이라고 하며,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마누엘 데란다의 『새로운 사회철학』의 중심 이론이다. “아상블라주는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발전시킨 용어이다. (...)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과정을 거쳐 당연하게 여겨진 기존의 조합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상블라주이다. 이질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재조합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조해내고 또 해체되면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탈주선(lines of flight)의 가능성을 형성해낸다.”(김수진, 「아상블라주 개념을 활용한 미술관의 글로벌 내러티브 연구 - 미국 미술관의 한국 미술 전시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제 69호(2019): 7.)

『GLQ』 「퀴어 비인간주의」호에 기고된 캐린 배러드의 「트랜스물질성: 트랜스*/물질/현실과 퀴어 정치적 상상물」은 내가 트랜스성화⁵⁾와 인종화 과정 사이에 제시한 충만한 관계에 놀라운 솜씨로 주의를 환기하면서도, 전에 실린 내 「프랑켄슈타인」 글과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의 관련성을 내가 해온 것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명시하였다(Barad 2015). 1994년 첫 글에서, 나는 내 “분노는 (...) 색을 찢어 넣”는다고 썼다(Stryker 1994: 244). 나는 그때 내가 답하기는커녕 적절히 표현할 방법조차 몰랐던 질문을 붙들기 위하여 “색”의 다의어적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알렉산더 워헐리에(2014)가 “생명관리정치적 배치의 급진화”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내 백인 트랜스젠더로서의 밀착으로부터 발생한 정동은 나와 다르게 급진화하고, 삶의 위계에서 나와 다르게 종속되고, 그럼에도 다르게 육화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일종의 공유지를 향해 내가 함께 가려 애쓰는 다른 이들에게서 발생한 여러 정동과의 어떤 친연성을 얼마나 공유하는가?

카트리나 로언은 자신의 2001년 글 「트랜스젠더 이론과 체현: 인종적 주변화의 위험」에서 트랜스젠더 분노와 색에 관한 구절에 관해 언급하고 나에 관해 “그가 분노에 의해 색이 입혀

5) (역자주) 원문은 transsexuation으로, 접두사 trans와 ‘성화’, ‘성 구분’, ‘성차’ 등으로 번역되는 sexuation을 합친 조어이다. 다음은 라캉의 성화에 관한 설명이다. “라캉은 사랑을 남성의 향유와 여성의 향유라는 관점을 통해 파악한다. 라캉의 의도는 이 두 가지 향유가 서로 분리된 것임을 보여주는데 있다. 이러한 성의 분리를 드러내기 위해 라캉이 동원하는 것이 그 유명한 성 구분(sexuation) 공식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 두 가지 명제를 통하여 특징화시키는 것이다. (...) 라캉은 거세 함수 ϕ 를 통하여 각 성의 입장을 표기하고 있다. 남성의 입장은 **보편성**의 입장이다. (...) 이것은 남성의 향유가 철저히 팔루스적 향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 결국 모든 남자가 거세의 팔루스적 함수에 복종하는 것은 그 팔루스적 함수에서 벗어난 ‘적어도 하나의 남자(hommoïnzin)’라는 예외적 존재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입장은 철저히 보편성, 즉 일자의 형상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흥준기가 잘 지적하듯이 “남자는 예외적 존재가 되고자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존재의 추구는 남성으로 하여금 보편적인 팔루스적 향유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 여성은 거세 함수에 예외 없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역설적인 결론을 가져온다. 이러한 예외 없음을 통하여 라캉은 여성에게 있어서의 상징적 아버지와 같은 초월적 일자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은 결국 ‘일자(Un)를 전제로 하는 전체(Tout)’라는 남성의 입장과 정 반대로 어떠한 일자도 없는(pas-une) 비-전체(pas-toute)인 것이다. 남성과는 반대로 여성은 어떤 초월적 일자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전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여성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테제가 나온다. 어떤 보편성을 갖는 것이 남성이라면, 그 보편성을 수립시키는 것은 팔루스적 거세 함수의 보편성이다. 남성은 이 함수를 통하여 전체로 수립되고 보편성을 갖는다. 여성은 그러한 팔루스적 함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성으로서의 여성(La femme)은 존재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여성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La femme)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한 보편성의 부재는 어떤 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관계는 다름 아닌 성관계이다 - “**성관계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의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성 구분 정식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향유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로 다른 관계일 뿐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개별적인 관계이다.

이것을 라캉의 담론 속에서의 여성의 입장의 부재로 파악하여 라캉이 여성을 폄하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그러한 여성의 부재는 남성의 입장이 만들어내는 보편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여성의 부재란 지배적 보편성의 부재이고 전체와의 분리를 표시한다. 라캉은 자신이 여성의 향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남성의 향유인 팔루스적 향유와 구분하여 보충적 향유(jouissance supplémentaire)라고 표현한다.”(서용순, 「철학과 정신분석-둘이라는 관건 (l'enjeu du Deux)」, 『현대정신분석』, 9권 1호 (2007): 219-221.) 여기서 스트라이커는 “트랜스성화”라는 말을 통해 라캉의 성화 개념을 트랜스젠더의 상황에 접목시켜, 트랜스젠더의 향유와 시스젠더의 향유가 여남간의 향유만큼이나 분리됨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졌는지는 명확하다. 그가 인종에 의해 색이 입혀졌음은 그렇지 않다”(256)고 정확하게 기술한 첫 학자이다. 학술적 트랜스젠더 이론화의 암묵적인 백색 규범은 내가 내 최선을 다할지라도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연구의 한 계보는 샌디 스톤의 「포스트성전환자 선언」에 그 뿌리를 둔다. 이 글은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1991)을 부분적으로 본떴고, 스톤이 1980년대 후기와 1990년대 초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의 의식사학과 과정에서 도나 해러웨이에게 수학한 시기에 쓰였다. 해러웨이는 자신의 사이보그 형상화가 유색인 여성 페미니즘에 의존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스톤은 글로리아 안잘두아가 『경계시대/경계선: 새로운 메스티자』(1987)을 출간하고 첼라 샌도발(2000)이 『억압받는 자들의 방법론』이 될 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흥분 가득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선언문을 작성하는 동안, 자신의 포스트성전환자 형상화의 더 깊은 계보나 더 넓은 맥락을 자신의 스승이 사이보그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내 집으로 여기는, 사고의 포스트성전환적 가닥 안에서 비가시화된 조상들과 유색인 친족을 되찾기까지 한 세대의 학계가 소요되었다.

내 「프랑켄슈타인」 글에 양자장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배러드는 내가 곱씹은 주제,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활발한 잠재력으로 충만한 무로부터 나타나 변화가 됨을 곱씹는다. 지금도 나는 내 글의 최고 강점이 자신의 체현 양식이 Man의 한계를 이루는 것과 다른 전제에 입각한, 기술-문화적 삶의 새로운 양상을 체현하는 즐거운 힘기르기의 경험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비체화된 경험을 내 글이 감정적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그러한 이해의 재현에 배치한, “자연이 넘쳐흘러 나온” “어둠”으로 내던져지고 “암흑”에서 일어나는 은유(Stryker 1994: 251)에 관한 배러드의 비평을 명심한다.⁶⁾

배러드(2015: 417)가 적듯이, 내 언어가 재현불가능성과 틈새성⁷⁾의 조건을 표명하는 데 얼마나 지향하건 간에, 공허에 관한 인식을 “가득하고 비옥하며, 풍요롭고 결실 있으며, 활발히 창조적이며 살아있는” 것으로 전하려 얼마나 노력하건 간에, 그러한 시도는 “무주지(無主地, terrae nullius)(백인 정착민이 ‘미개발지의 발견’을 마주하기 위해 주장하는 가정적 공백, 즉 ‘문명’의 흔적이 없다고 가정되는 땅)과 같은 식민주의적 주장의 기저를 이루는 형이상학이며, 공간과 시간, 장소와 역사의 시원(始原)을 백인 남성의 도래와 관련짓는 논리”를 다시 개괄한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무심코 어둠을 표시되지도 인지되지도 않은, 백색의 존재가 의존하는

6) (감수자주) 양자장론의 관점에서, 특정한 공간의 특정한 시점에서 그 에너지의 값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는 진공이 고정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요동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가상 입자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시킨다는 것을 지시한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입자들 또한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므로 양자 요동에 의해 끊임없이 가상 입자를 내뿜고, 또 그것을 스스로 흡수하는 상호작용을 거친다. 입자들에 무(無)가 덧입혀지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한 입자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어 버린다. 배러드(2015)는 이를 가리켜 존재의 핵심에 괴팍함과 기이함(perversity and monstrosity)이 깔려 있다고 논했다.

7) (역자주) interstitiality. “레슬리 보는 (미국 원주민과 메스티사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을 ‘틈새 인구(interstitial populations)’, 혹은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주요 인종 범주 (흑과 백) 사이에 존재하는 인구라고 정제화했다. (...) 레슬리 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흑과 백의 틈새(interstices)는 기존의 관점과 정의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인종적으로 틈새에 있는 집단은 법의 불안정성의 실제적 실현, 그 인식론적 한계, 그 요구의 과도함을 드러낼 수 있다.””(로즈마리 퍼트넘 통,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김동진 옮김 (서울: 학이시습, 2019), 215-216.) 스트라이커는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 보의 인종적인 것 대신 트랜스젠더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원적 성별 사이의 틈새를 드러내려 했던 자신의 이전 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상태로 상상하는 인종차별적 비유를 영속시킨다. 마르키 베이는 최근 글 「어둠의 트랜스*함, 트랜스*함의 어둠」에서 어둠과 트랜스함이 “현대 사회에서는 인종 및 성적 탈주로 다르게” 나타나는 “본래적 무법의 다른 방식으로 굴절된 이름이다”라고 말해, 모양이 형편없게 갖춰진 내 의도를 나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Bey 2017: 275).

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이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에 퀴어 이론과 어떻게 관련될지, 글과 퀴어 이론이 애초에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긴 할지 전혀 모르겠다. 모든 일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메리 셸리 소설의 200주년을 기념하고, 이 작품이 유럽중심적이고 생명관리정치적인 근대성에 대한 페미니즘적이고, 퀴어함이 내포되어 있으며, 포스트휴먼적인 비평을 언제나 제기한 방식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는 내 글이 유명한 문학의 괴물과 함께하며 내 글에 영감을 준 글의 장수(長壽)를 어느 정도 나눠 갖고, 바라건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형태로 오더라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면 기쁘리라.

참고문헌

- ❖ Anzaldúa, Gloria. 1987.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 ❖ Barad, Karen. 2015. "TransMaterialities: Trans*/Matter/Realities and Queer Political Imagining." *GLQ* 21, nos. 2-3:387-422.
- ❖ Bey, Marquis. 2017. "The Trans*-Ness of Blackness, the Blackness of Trans*Ness." *TSQ* 4, no. 2: 275-95.
- ❖ Butler, Judith. 1993. "Critically Queer." *GLQ* 1, no. 1: 17-32.
- ❖ Cohen, Cathy J. 1997. "Punks, Bulldahners, and Welfare Queens: The Radical Potential of Queer Politics?" *GLQ* 3, no 4: 437-65.
- ❖ Galofre, Pol, and Miquel Misse, eds. 2015. *Políticas Trans: Una antología de textos desde los estudios trans norteamericanos*. Barcelona: Editorial Egales.
- ❖ Haraway, Donna. 1991.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149-81. New York: Routledge.
- ❖ Liberazioni. 2015. "Monstri(e) Queer." *Liberazioni: Rivista di critica antispecista* 21. www.liberazioni.org/liberazioni-n-21/.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링크.)
- ❖ Muñoz, José Esteban, Jinthana, Haritaworn, Myra Hird, Zakiyyah Iman Jackson, Jasbir K. Puar Eileen Joy, Uri McMillan, Susan Stryker, Kim TallBear, Jami Weinstein, and Jack Halberstam. 2015. "Dossier: Theorizing Queer Inhumanisms." *GLQ* 21, nos. 2-3: 209-48.
- ❖ Roen, Katrina. 2001. "Transgender Theory and Embodiment: The Risk of Racial Marginalisation." *Journal of Gender Studies* 10, no. 3: 253-63.
- ❖ Sandoval, Chela. 2000. *Methodology of the Oppress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 Sedgwick, Eve Kosofsky. 1993. "Queer Performativity: Henry James's *The Art of the Novel*." *GLQ* 1, no. 1: 1-16.
- ❖ Stone, Sandy. 1992. "The *Empire* Strikes Back: A Posttranssexual Manifesto." In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edited by Julia Epstein and Kristina Straub, 280-304. New York: Routledge.
- ❖ Stryker, Susan. 1994.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1, no. 3: 237-54.
- ❖ . 2004. "Transgender Studies: Queer Theory's Evil Twin." *GLQ* 10, no. 2: 212-15.
- ❖ Sullivan, Nikki. 2005. "Transmogrification: (Un)Becoming Other(s)." In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 edited by Susan Stryker and Stephen Whittle, 552-64. New York: Routledge.
- ❖ Weaver, Harlan. 2013. "Monster Trans: Diffracting Affect, Reading Rage." *Somatechnics* 3, no. 2: 287-306.
- ❖ Weheliye, Alexander. 2014. *Habeas Viscus: Racializing Assemblages, Biopolitics,*

- and Black Feminist Theories of the Huma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 Zigarovich, Jolene, ed. 2018. *The TransGothic in Literature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